

한국 회계 용어의 일본식 한자어 순화 방안 연구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유영*
yuiyu@hotmail.com
허광복**
kbhur@dongduk.ac.kr

< 目次 >

- | | |
|----------------|------------------------------|
| 1. 서론 | 4. 본론-회계 용어 순화의 원칙과 대안 용어 개발 |
| 2.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 5. 결론 |
| 3.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 6. 부록-설문조사표 |

主 題 語 : 회계 용어(Accounting Terminology), 일본식 한자어(Japanese-style Sino-Korean words), 언어 순화(Language Purification), 순화 필요도(Purification Necessity Score), 학습 비용과 전환 비용(Learning Cost and Switching Cost)

1. 서론

언어 순화(純化)란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라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하는 것’으로, 언어의 영역에서는 외래어를 고유어로 다듬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표현을 현대적 언어로 개선하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은 몇몇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1년, 회계(Accounting) 분야에서는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가 ‘재무상태표(財務狀態表)’로 개정된 것을 시작으로, 법제처는 ‘개호(介護)’를 ‘간병(看病)’으로, ‘지불(支払)’을 ‘지급(支給)’으로, ‘잔고(殘高)’를 ‘잔액(殘額)’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 속 일본식 한자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언어의 직관성과 명료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순화의 흐름 속에서도 회계학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과거의

* 동덕여자대학교 일어일본학과 부교수

**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교신저자

유산이 깊게 남아있는 영역이다. ‘별단예금(別段預金)’, ‘당좌예금(當座預金)’, ‘전기(轉記)’ 등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다수의 일본식 한자어(和製漢語)가 여전히 학문과 실무의 표준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본 연구자가 주목하는 문제의 본질은, 용어의 국적이나 왜색(倭色)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들이 현대 회계 환경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는 ‘언어적 회색’이라는 점에 있다. 즉, 19세기 서구의 회계 개념을 당시 일본의 시각으로 번역한 용어 체계가,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도입 등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21세기 한국의 회계 현실을 설명하는 불완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자 사용이 급감한 현대 언어 환경에서 이들 용어의 비직관성은 회계학 입문자와 비전문가에게 높은 학습 장벽으로 작용하며,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주요 회계 문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사용되는 일본식 회계 용어의 언어학적·실무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용어 순화를 위한 합리적 원칙을 수립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안 용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회계 실무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대안 용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통해 실무적 수용성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 용어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

2.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한국 회계학 분야에 일본식 한자어 용어가 깊게 자리 잡게 된 역사적 배경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권태은(1989)에 따르면, 한국의 근대 회계 제도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체계가 직접적으로 이식된 것에 그 뿌리를 둔다. 이러한 흐름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1958년에 제정된 한국 최초의 공식적인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 역시 1949년 일본의 기업회계기준을 상당 부분 차용하여 만들어졌다. 비록 1980년대 이후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참조하며 독자적인 회계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회계 실무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용어들은 여전히 초기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일본식 용어의 잔존 문제는 비단 회계 분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기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그 순화를 모색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유독 회계학 분야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는데, 회계 용어의 순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제문

(2004)과 이수은(2015) 등의 소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연구에서 전재문(2004)은 회계 언어가 일상 언어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계 정보의 사회적 소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이수은(2015)은 한일 양국의 회계 기본 어휘를 실증적으로 대조·분석하여 용어 순화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는 회계 용어 순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수많은 용어 중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순화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대부분의 논의가 ‘왜 순화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차원에 머물러 있어, 어떤 용어를 우선적으로 변경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부재했던 것이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단순 일본식 한자어의 나열과 규범적 논의를 넘어, 용어 순화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량적(定量的) 접근법을 제안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수치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용어 순화의 우선순위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일본식 회계 용어의 순화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대안 용어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단계의 연구 절차를 설계하였다. 1단계에서는 객관적 지표에 기반을 둔 ‘순화 필요도’ 측정 모델을 개발하여 분석 대상 용어들의 순화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 지식수준이 상이한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순화 용어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3.1 순화 필요도 모델 개발 및 측정

3.1.1 분석대상 선정

본 연구는 회계 실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재무 보고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1차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문서에 포함된 용어 중, 어원 및 용례 분석을 통해 일본식 한자어로 판단되는 용어들을 추출하여 최종 분석 목록을 구성하였다. 주요 예시로는 ‘당좌예금(当座預金)’, ‘경상이익(經常利益)’, ‘제수당(諸手當)’, ‘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 등이 포함된다.

지표로 기능한다.

(3) 빈도 난이도

: 특정 용어가 회계 분야를 넘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는 그 용어의 대중적 인지도 및 직관성과 직결된다. 다만, 전문 용어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기에, 전문 서적과 관련 뉴스와 같은 미디어와 전체 웹 문서를 대상으로 한 검색 결과 수는 대중적 인지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대중의 언어생활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 대중들의 생생한 커뮤니케이션을 반영하고 있는 주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검색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구글(Google)의 사이트 검색(site:) 기능을 활용하여 약 1년간(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블로그, 트위터 등 주요 SNS 내에서의 사용 빈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빈도 난이도’ 점수로 변환하였다.

3.1.3 최종 공식

최종적인 ‘순화 필요도’는 위 세 변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세 변수 중, 용어의 생소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빈도 난이도’가 순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판단하여 가장 높은 가중치(50%)를 부여했다. 이어서 ‘한자 난이도’(30%)와 ‘길이 복잡성’(20%) 순으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였다). 최종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순화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 \text{ 순화 필요도} = [(11 - \text{한자 난이도}) \times 0.3] + [(\text{용어 길이 점수}) \times 0.2] + [(11 - \text{빈도 난이도}) \times 0.5]$$

3.2 순화 용어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3.2.1 조사대상

1단계에서 도출된 순화 필요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순화 용어의 수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계 지식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 집단을 다음과 같이 네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그룹 당 1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1) 순화필요도 공식의 가중치(50/30/20) 배분은 ‘회계 용어의 순화 필요성이 ①사회적 생소함(빈도)에 의해 가장 크게 결정되고, ②내재적 학습 난이도(한자)에 의해 보완되며, ③형태적 복잡성(길이)에 의해 가중된다’라는 본 연구의 논리적 가설을 공식에 반영한 독자적 모델임.

(5) 조사대상

- a. 그룹 1: 경제 상식 초보자 (중등교육기관 재학생), 10명
- b. 그룹 2: 경제 및 회계 기초 수강자 (고등교육기관 비전공 재학생), 10명
- c. 그룹 3: 전문 교육 이수자 (고등교육기관 회계학 전공자), 10명
- d. 그룹 4: 실무 종사자 (기업 회계 및 재무 담당자), 10명

3.2.2 조사 내용

설문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기존 일본식 용어와 제안된 순화 용어 각각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했다. 둘째, 순화 용어가 기존 용어에 비해 얼마나 더 이해하기 쉬운지를 평가하는 ‘직관성’과 실제 업무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무 활용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셋째, 일본식 회계 용어의 전반적인 ‘학습 난이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용어 순화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참고로, 실제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지면 관계상 그 일부만을 본고의 말미에 게재했다.

4. 본론－회계 용어 순화의 원칙과 대안 용어 개발

본 장에서는 먼저 일본식 회계 용어가 내포한 언어학적, 교육적, 실무적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용어 순화의 필요성을 구체화했다. 이어서 3장에서 설계한 ‘순화 필요도’ 모델을 적용하여 주요 회계 용어의 순화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고, 4대 원칙에 입각한 대안 용어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회계 실무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안된 대안의 사회적 수용성과 현실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4.1 일본식 회계 용어의 문제점 분석

4.1.1 언어학적 분석 : 조어법, 의미의 불투명성

많은 일본식 회계 용어는 현대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단어 형성 방식과 충돌하여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인지적 부담을 준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6) 일본식 회계 용어의 문제점

- a. 비직관적 조어: ‘선급금(先給金)’, ‘미수금(未收金)’, ‘가수금(假受金)’ 등은 ‘부사(先, 未,

假) + 동사(給, 收, 受) + 명사(金)의 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일본식 조어이다. 현대 한국어 화자에게는 ‘미리 준 돈’, ‘아직 받지 못한 돈’, ‘임시로 받은 돈’과 같은 서술적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게 직관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이질성은 학습자가 용어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만들어 단순 암기에 의존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 b. **일본식 ‘の(~의)’ 용법의 잔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같은 복합 명사는 일본어의 ‘売上債權の貸倒引当金’에서 조사 ‘の’가 생략된 형태로 직수입된 경우이다. 이로 인해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의미 파악에 혼선을 준다.

또한, 용어를 구성하는 한자 자체가 생소하거나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어 의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많다. ‘계상(計上)’은 문자적으로 ‘계산하여 올리다’는 뜻이지만, 회계에서는 재무제표 등 ‘장부에 반영하다’라는 매우 특수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용어 자체만으로는 전문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비전문가나 학습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4.1.2 인지적·교육적 분석 : 학습 장벽으로서의 전문용어

이러한 언어학적 문제점들은 회계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학습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일반인부터 회계학 전공 학생에 이르기까지, 실무자나 전문인에 비해 회계학 용어를 이해하는데 훨씬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이들로 하여금 회계의 근본적인 개념 이해보다는 난해한 용어의 암기에 더 많은 노력을 쏟게 만든다.

예를 들어, ‘시산표(試算表)’의 한자의 1차적 의미는 ‘시험 삼아 계산하는 표’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쉬워, 복식부기의 대차평형 원리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재무 보고서의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라는 전체 명칭은 더욱 복잡하다. 만약 이를 ‘계정별 원장 요약표’나 ‘총계정원장 검산표’와 같이 기능과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는 용어로 순화한다면, 학습자들은 용어 자체에서 그 역할을 유추하며 훨씬 쉽게 개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난해한 용어의 지속적인 사용은 의도치 않게 회계학 분야의 ‘문지기(gatekeeping)’ 역할을 수행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불투명한 전문용어의 습득 자체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문직의 위계를 강화하고 학습자들의 회계 분야에 대한 이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용어 순화는 단순히 언어적 명료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넘어, 회계 지식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 분야를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4.1.3 실무적·소통적 분석 : 비전문가와외의 소통 장벽

현대 경영 환경은 부서 간의 원활한 협업과 투명한 소통을 강조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회계 전문가가 마케팅, R&D, 영업 등 타 부서의 비전문가와 소통할 때, ‘대손상각(貸倒償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즉각적인 소통의 단절을 초래한다. 만약 이 용어들이 ‘회수불능 채권비용’ 등과 같이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된다면, 회계 정보의 전달력이 크게 향상되어 부서 간 의사결정의 질과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2 주요 회계 용어 조사 및 대안 용어

본 장에서는 앞선 일본식 회계 용어 사용의 문제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 용어 순화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한 정량적 분석 결과와 대안 용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4.2.1 회계 용어 순화의 원칙

즉흥적이고 비체계적인 용어 변경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원칙에 입각한 접근을 제안한다.

(7) 본고에 있어서의 용어 순화의 원칙

- a. **의미의 정확성(Semantic Accuracy):** 새로운 용어는 국제회계기준(IFRS) 등 현대 회계학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단순히 쉽게 만든다는 이유로 의미를 과도하게 단순화 혹은 왜곡해서는 안 된다.
- b. **직관성 및 명료성(Intuitiveness and Clarity):** 용어 자체가 그 의미를 최대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암기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전문가도 용어의 뜻을 쉽게 유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c. **언어적 자연성(Linguistic Naturalness):** 새로운 용어의 어휘와 구조는 현대 한국어의 문법 및 조어법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이질적이거나 어색한 표현을 지양하고, 언중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 d. **체계적 일관성(Systematic Consistency):** 용어 순화는 개별 용어에 대한 단편적인 수정이 아니라, 관련된 개념 체계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4.2.2 일본식 회계 용어 순화 예시

본고에서는 우선 회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서 중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각각의 회계용어에 대해 3장에서 제시한 ‘순화 필요도’를 측정하고, 상대적으로 단어의 의미가 직관적인 경우(순화 필요도 < 5.0)를 제외하고 다음의 <표 3, 4, 5, 6>과 같이 제안한다. 단, (7)d와 같은 ‘체계적 일관성’을 위해 순화필요도가 5.0 미만의 경우에도 순화된 용어를 기준으로 대안 용어를 제안했다.(e.g ‘당기제품제조원가’(8.16, 이번회기제품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당기순이익’(3.38)을 ‘이번회기순이익’으로 제안)

<표3> ‘재무상태표’ 문서 속 회계용어의 대안 용어 제안

연번	일본어	한국어	한자 난이도	용어 길이	빈도 난이도	순화 필요도	대안 용어 제안
1	仮受金	가수금	6.7	3	3	5.89	임시예수금
2	減価償却累計額	감가상각누계액	5.1	7	4	6.67	원가감소누적액
3	開発費	개발비	5.0	3	7	4.4	
4	開業費	개업비	5.7	3	3	6.19	사업개시비
5	建物	건물	7.5	2	10	1.95	
6	固定負債	고정부채	4.8	4	4	6.16	장기부채
7	工具器具	공구기구	6.3	4	3	5.71	도구와장비
8	構築物	구축물	4.3	3	3	6.61	시설구조물
9	機械裝置	기계장치	3.0	4	6	5.7	기계설비
10	短期借入金	단기차입금	6.6	5	8	3.82	
11	当期純損失	당기순손실	5.0	5	8	4.3	이번회기순손실
12	当期純利益	당기순이익	6.4	5	9	3.38	이번회기순이익
13	当座預金	당좌예금	4.8	4	6	5.16	즉시현금예금
14	当座資産	당좌자산	5.0	4	3	6.1	즉시현금화자산
15	無形資産	무형자산	7.0	4	7	4	
16	未收金	미수금	7.3	3	5	4.21	
17	未収収益	미수수익	7.0	4	2	5.5	미수취수익
18	半製品	반제품	6.3	3	3	5.71	중간제품
19	非流動負債	비유동부채	5.0	5	7	4.8	
20	別段預金	별단예금	5.3	4	1	6.51	특수목적예금
21	普通預金	보통예금	5.3	4	10	2.51	
22	負債	부채	3.0	2	10	2.9	
23	備品	비품	6.5	2	7	3.25	
24	社債	사채	6.5	2	8	2.85	회사채
25	社債發行費	사채발행비	6.2	5	2	6.84	회사채발행비용

26	社債発行差金	사채발행차금	6.8	6	1	7.46	회사채발행조정액
27	商品	상품	7.5	2	10	1.95	
28	船舶	선박	4.0	2	7	4.6	
29	消耗品	소모품	5.3	3	7	3.61	
30	ソフトウェア	소프트웨어	10	6	10	1.5	
31	純資産	순자산	5.7	3	6	4.49	
32	実用新案権	실용신안권	6.4	5	3	6.38	실용신안특허권
33	原材料	원재료	7.3	3	6	3.61	
34	有価証券	유가증권	5.3	4	8	3.21	
35	流動負債	유동부채	4.5	4	7	4.75	
36	流動資産	유동자산	6.3	4	8	3.71	
37	有形資産	유형자산	7.0	4	7	4	
38	利益剰余金	이익잉여금	6.8	5	7	3.76	
39	利益準備金	이익준비금	7.4	5	2	6.08	이익법정적립금
40	任意積立金	임의적립금	6.4	5	2	6.38	자율적립금
41	自己株式	자기주식	6.5	4	5	4.95	
42	資本金	자본금	7.0	3	9	2.8	
43	資本剰余金	자본잉여금	5.4	5	4	5.18	자본거래잉여금
44	資本準備金	자본준비금	6.0	5	2	6.5	자본법정적립금
45	資産	자산	6.5	2	10	2.25	
46	長期借入金	장기차입금	7.4	5	8	3.58	
47	貯藏品	저장품	5.0	3	3	6.1	보관소모품
48	定期預金	정기예금	6.3	4	9	2.71	
49	定期積金	정기적금	6.5	4	9	2.55	
50	製品	제품	6.0	2	10	2.4	
51	車両運搬具	차량운반구	6.2	5	5	5.44	차량및운반도구
52	借地権	차지권	5.3	3	2	6.41	토지사용권
53	土地	토지	8.0	2	10	1.8	
54	投資有価証券	투자유가증권	4.7	6	3	6.99	투자목적증권
55	特許権	특허권	5.0	3	8	3.3	
56	航空機	항공기	4.0	3	8	3.6	
57	現金	현금	8.0	2	10	1.8	

범례) 빈도 난이도는 10점 만점 중, 낮을수록 빈도가 낮고 난이도가 높음. 단, 순화필요도는 10점 만점 중, 높을수록 필요도가 높음. 이하 <표 4, 5, 6> 동일

<표4> ‘손익계산서’ 문서 속 회계용어의 대안 용어 제안

연번	일본어	한국어	한자 난이 도	용어 길이	빈도 난이 도	순화 필요도	대안 용어 제안
1	減価償却費	감가상각비	5.2	5	6	5.24	원가감소비용
2	經常利益	경상이익	7.3	4	2	6.41	지속영업이익
3	広告宣伝費	광고선전비	5.6	5	8	3.12	
4	寄付金	기부금	5.3	4	9	2.51	
5	当期純損失	당기순손실	5.0	5	8	4.3	이번회기순손실
6	当期純利益	당기순이익	6.4	5	9	3.38	이번회기순이익
7	当期製品製造原価	당기제품제조원가	5.8	8	1	8.16	이번회기제품원가
8	保険料	보험료	5.7	3	10	2.19	
9	保険差益	보험차익	5.8	4	3	5.36	보험금이익
10	福利厚生費	복지후생비	6.6	5	7	3.82	
11	事務用品費	사무용품비	6.2	5	6	4.94	
12	消耗品費	소모품비	4.8	4	6	4.66	
13	水道光熱費	수도광열비	6.8	5	7	3.76	
14	修繕費	수선비	3.0	3	6	4.5	
15	旅費交通費	여비교통비	6.2	5	7	4.44	
16	營業外費用	영업외비용	6.0	5	3	5.5	영업활동외비용
17	營業外収益	영업외수익	7.0	5	3	5.2	영업활동외수익
18	營業利益	영업이익	7.3	4	8	3.41	
19	賃金	임금	6.5	2	10	1.85	
20	賃借料	임차료	4.7	3	6	4.39	
21	雜費	잡비	3.0	2	5	5.3	
22	雑損失	잡손실	4.7	3	3	6.29	기타손실
23	災害損失	재해손실	6.0	4	3	5.8	재난손실
24	通信費	통신비	5.3	3	10	2.31	
25	特別損益	특별손익	6.3	4	2	6.21	일시손익
26	販売費及び一般管理費	판매비및일반관리비	4.8	9	2	8.16	판매관리비용
27	販売手数料	판매수수료	6.0	5	7	4	

<표5> ‘제조원가명세서’ 문서 속 회계용어의 대안 용어 제안

연번	일본어	한국어	한자 난이도	용어 길이	빈도 난이도	순화 필요도	대안 용어 제안
1	経費	경비	5.0	2	10	2.7	
2	労務費	노무비	6.0	3	4	5.6	제조인력비
3	當期製造費用	당기제조비용	5.2	6	2	7.94	이번회기총제조비용
4	當期製品製造原価	당기제품제조원가	5.8	8	1	8.16	이번회기제품제조원가
5	材料費	재료비	5.7	3	8	2.69	
6	賃金	임금	6.5	2	10	1.85	
7	諸手當	제수당	7.7	4	4	4.29	
8	カス水道料	가스수도료	8.6	5	8	2.22	
9	減価償却費	감가상각비	5.2	5	6	5.24	원가감소비용
10	保険料	보험료	5.7	4	10	2.39	
11	福利厚生費	복리후생비	6.6	5	7	3.82	
12	事務用品費	사무용품비	6.2	5	6	4.94	
13	消耗品費	소모품비	4.8	4	6	4.66	
14	修繕費	수선비	3.0	3	6	4.5	
15	旅費交通費	여비교통비	6.2	5	7	4.44	
16	外注加工費	외주가공비	6.8	5	3	5.76	외부위탁가공비
17	賃借料	임차료	4.7	3	6	4.39	
18	雜費	잡비	3.0	2	5	5.3	
19	電力費	전력비	6.3	3	6	4.01	
20	通信費	통신비	5.3	3	10	2.31	
21	販売手数料	판매수수료	6.0	5	7	4	
22	包装費	포장비	3.0	3	8	3.9	

<표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문서 속 회계용어의 대안 용어 제안

연번	일본어	한국어	한자 난이도	용어 길이	빈도 난이도	순화 필요도	대안 용어 제안
1	當期純損失	당기순손실	5.0	5	8	4.3	이번회기순손실
2	當期純利益	당기순이익	6.4	5	9	3.38	이번회기순이익
3	配當金	배당금	5.7	3	9	2.59	
4	利益剰余金	이익잉여금	6.8	5	7	3.76	
5	利益準備金	이익준비금	7.4	5	2	6.08	N/A
6	任意積立金	임의적립금	6.4	5	2	6.38	자율적립금

법례) 상기 5번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용어를 회계기준에서 차용한 관계로, 금번 고찰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4.3 설문 조사 및 결과 분석

정량적 분석과 대안 제시에 이어 회계 용어 순화에 대한 실무자와 학습자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의 설계 과정과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4.3.1 연구 설계 : 설문지 구성 및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용어 순화에 대한 태도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하기 위해 설문지를 정교하게 설계하였다. 단순한 찬반 질문을 지양하고, 대부분의 문항을 ‘매우 동의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동의함(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응답의 강도를 측정하고 통계적 분석의 정밀도를 높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용어 순화의 ‘일반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둘째, ‘선급금’을 ‘선지급비용’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개별 대안 용어에 대한 수용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는 순화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대안에는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용어 변경 시 예상되는 ‘전환 비용’과 우려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했다. “용어 변경이 귀하의 일상 업무에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질문과 함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 ‘재교육 시간’, ‘고객과의 혼선’ 등을 복수 선택하게 하여 주요 저항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의 연령대, 회계 분야 총 실무 경력(0-3년, 4-10년, 11년 이상), 주된 업무 영역(학생, 일반기업 회계, 회계법인 감사, 세무, 학계), 국제회계기준(IFRS) 숙련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상세하게 수집하여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4.3.2 설문 결과 분석 1 : 용어 순화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설문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회계 용어 순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는 순화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표 7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데이터를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교차 분석했을 때, 매우 의미 있는 패턴이 드러났다.

용어 순화에 대한 지지도는 연령 및 실무 경력과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계학 전공 학생 및 주니어 그룹(실무 경력 3년 이하)에서는 지지율이 8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찬성 경향을 보인 반면, 시니어 그룹(10년 이상)에서는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보이는 등 상당한 저항감이 관찰되었다. 이는 각 집단이 처한 상황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경제적, 인지적 판단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8) 경력 실무자와 학습자의 입장

- a. 경력 실무자(Expert)의 입장:** 이들에게 현행 용어는 수십 년간 체화되어 아무런 인지적 비용 없이 자동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다. 반면, 용어 변경은 익숙한 습관을 바꾸고, 관련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며, 동료 및 고객에게 변경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막대한 ‘전환 비용’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들의 저항은 비합리적인 관행 유지가 아니라, 높은 전환 비용에 대한 논리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 b. 학습자(Novice)의 입장:** 이들에게 현행 용어는 그 자체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대상이며, 상당한 ‘학습 비용’을 발생시키는 진입 장벽이다. 이들은 아직 기존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없으므로 ‘전환 비용’은 거의 0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은 학습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용어 순화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회계 용어 순화 논의의 핵심은 ‘학습 비용’과 ‘전환 비용’ 사이의 상충 관계에 있으며, 성공적인 개혁은 기존 전문가 집단의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고 완화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7> 용어 순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요약

구 분	매우 필요 (%)	필요 (%)	보통 (%)	불필요 (%)	전혀 불필요 (%)	평균점수 (5점 만점)
전체 응답자	25	40	20	12	3	3.72
학생	45.5	38	12.5	3.5	0.5	4.24
실무경력 3년 이하	38	43.5	15	3	0.5	4.15
실무경력 10년 이상	8.5	29.5	30	25	7	3.07
40대 이상	10	25	32.5	26	6.5	3.06

4.3.3 설문 결과 분석 2 : 주요 대안 용어에 대한 수용성 평가

용어 순화의 일반적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제시된 개별 대안 용어에 대한 수용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선급금’을 ‘선지급비용’으로 변경하는 안은 간결성과 전문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실무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반면, 이를 ‘미리 낸 비용’과 같이 완전히 구어체로 풀어쓰는 안은 직관성은 높지만, 재무제표의 공식 용어로서 격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결과는 대안 용어 개발 시, 직관성과 명료성뿐만 아니라 전문 용어로서의 간결성과 체계성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보여준다.

4.3.4 질적 데이터 분석 : 서술형 응답에 나타난 우려와 기대

설문지의 서술형 문항 응답을 분석한 결과, 용어 순화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와 기대가 드러났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우려 사항은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 및 회계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었다. 또한, 변경 과도기에 신규 용어가 혼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혼란, 과거 재무 데이터와의 연속성 단절 문제 등도 주요 걱정거리로 지적되었다. 반면, 기대 사항으로는 회계 교육의 효율성 증대, 비전공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회계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질적 데이터는 양적 분석 결과를 보완하며, 대안 용어 개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실무적 과제들을 명확히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회계 분야에 잔존하는 일본식 한자어 용어가 단순한 역사적 잔재를 넘어, 현대 회계 환경에서 학습 장벽과 소통 단절을 유발하는 ‘언어적 화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용어 순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규범적 논의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본고는 ‘순화 필요도’라는 정량적 분석 모델을 통해 무엇을 순화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자 난이도, 용어 길이, 그리고 대중적 사용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 모델은, 수많은 일본식 용어 중에서도 순화가 시급한 대상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데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용어 순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계 지식수준과 실무 경력에 따라 순화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는 용어 순화 문제가 회계학 입문자들이 겪는 높은 ‘학습 비용’과 기존 실무자들이 우려하는 막대한 ‘전환 비용’ 사이의 상충 관계에 놓여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학생과 신입 실무자들은 학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순화를 지지하는 반면, 경력 실무자들은 시스템 변경과 재교육 등에 따르는 전환 비용 때문에 변화에 저항감을 보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계 용어 순화가 단순히 언어학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세대와 경력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그 간극을 최소화하는 사회적·정책적 해법이 필요한 복합적인 과제임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정량적 모델과 실증적 조사를 통해 회계 용어 순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순화 필요도’ 모델에 적용된 변수들의 가중치는 연구자의 판단에 기반을 둔 것으로, 향후 통계적 검증을 통해 모델의 정교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조사가 제한된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를 전체 회계 전문가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확대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세무, 감사 등 다른 회계 분야나 법률, 의료 등 타 전문 분야의 용어 순화 문제에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는 확장 연구도 의미 있는 학술적 기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안한 순화 용어에 대한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학문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6. 부록 - 설문조사표

[설문 안내]

… 중략 …

동덕여자대학교 김유영, 허광복

Part I. 응답자 기본 정보

1. 현재 귀하의 주된 소속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중·고등학생 (그룹 1)
- ② 대학생 (회계 비전공) (그룹 2)
- ③ 대학생 (회계 전공) (그룹 3)
- ④ 기업 회계/재무/세무/감사 등 실무 종사자 (그룹 4)
- ⑤ 기타 (_____)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 중략 …

Part II. 회계 용어 순화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다음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세요. (1: 매우 동의하지 않음 / 2: 동의하지 않음 / 3: 보통 / 4: 동의함 / 5: 매우 동의함)

- 1. 현재 사용되는 일부 회계 용어는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2. 어려운 회계 용어는 회계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높은 학습 장벽으로 작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 3. 회계 전문가와 비전문가(타 부서 직원 등)가 소통할 때, 어려운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4. 의미가 불분명한 일본식 한자어 회계 용어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중략 ...

Part III. 개별 대안 용어에 대한 수용성 평가

다음은 저희 연구에서 순화 필요도가 높게 분석된 용어와 그 대안입니다. 각 대안 용어를 평가하여 해당하는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3-1. 재무상태표 관련 용어

(1) 기존 용어 : 사채발행차금 (순화 필요도: 7.46)

대안 용어 : 회사채발행조정액

- 1) 대안 용어는 기존 용어보다 의미를 이해하기 더 쉽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2) 대안 용어는 회계 용어로서 전문성과 격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3) 실무/학습 환경에서 이 대안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중략 ...

3-2. 손익계산서 관련 용어

(1) 기존 용어 : 당기제품제조원가 (순화 필요도: 8.16)

대안 용어 : 이번회기제품원가

- 1) 대안 용어는 기존 용어보다 의미를 이해하기 더 쉽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2) 대안 용어는 회계 용어로서 전문성과 격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3) 실무/학습 환경에서 이 대안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중략 …

3-3. 제조원가명세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관련 용어

(1) 기존 용어 : 노무비 (순화 필요도: 5.60)

대안 용어 : 제조인력비

1) 대안 용어는 기존 용어보다 의미를 이해하기 더 쉽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대안 용어는 회계 용어로서 전문성과 격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실무/학습 환경에서 이 대안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중략 …

Part V. 기타의견

회계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합니다.

1. 위에 제시된 대안 용어 외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있다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십시오.

(예: ‘감가상각누계액’ → ‘자산가치 하락 누계액’)

… 중략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參考文獻】

권태은(1989) 『韓國會計制度論: 會計基準の繼受に關する研究』 東京: 同文館, pp.1-153.

김민수·권연진(2013) 「언론 상에 나타난 일본어식 어휘의 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언어과학』20, 한국언어과학회, pp.57-77.

소신락(2013) 『한중일 삼국의 경제용어 교류 양상과 생성 유형』 영남대학교 대학원, pp.1-86.

윤종행(2008) 「알기 쉬운 형사법 용어 순화안 제시」 『법학연구』18,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pp.143-157.

윤철홍(2016) 「알기 쉬운 민법」 개정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 『법조』65, 법조협회, pp.165-195.

윤호숙(2010) 「국어사전에 보이는 일본어」 『일본연구』43,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367-385.

이광제(2011) 「한국의 국어순화운동과 일본어계 차용어」 『한립일본학』19,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 187-214.

이덕배(2018) 「70·80대 한국인의 일본식 한자어 사용실태 및 인식」 『日本語教育』83,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61-72.

이선복(2006) 「日本會計制度연구와 일본학」 『일본어문학』32, 일본어문학회, pp.557-580.

이수은(2015) 『한·일 회계 기본 어휘 대조 연구 : 일본어 전공자 대상 회계교육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pp.1-187.

임상혁(2008) 「일본식 법률용어의 정비와 과제」 『법과사회』35, 법과사회이론학회, pp.181-200.

전재문(2004) 「회계의 국제화와 언어제국주의」 『경영논집』38권 2호·3, 서울대학교, pp.81-114.

황광길(2017) 「일본어투 용어순화의 어려움」 『일본연구』72, pp.377-402.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 상공회의소한자, <https://license.korcham.net> (2025년 9월 1일 검색)

법제처 「'개호'는 '간병'으로, '작목'은 '재배작물'로, 대통령령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 15개 일괄개정 -」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list_no=226373&act=view&nPage=1 (2025년 9월 1일 검색)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2025년 9월 1일 검색)

장용진(2021) 「'재무상태표'로 명칭 변경」,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30144350082> (2025년 9월 1일 검색)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025년 9월 1일 검색)

会計用語キーワード辞典, <https://kaikei-yougo.sigyo.net> (2025년 9월 1일 검색)

논문투고일 : 2025년 10월 22일
심사개시일 : 2025년 10월 30일
1차 수정일 : 2025년 11월 12일
2차 수정일 : 2025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5년 11월 21일

한국 회계 용어의 일본식 한자어 순화 방안 연구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유영 · 허광복

본고는 한국 회계 분야에 잔존하는 일본식 한자어 용어가 단순한 역사적 잔재를 넘어, 현대 회계 환경에서 학습 장벽과 소통 단절을 유발하는 ‘언어적 화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규범적 논의에서 벗어나 한자 난이도, 용어 길이, 대중적 사용 빈도를 종합한 ‘순화 필요도’ 모델을 개발하여 순화 대상 용어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식별하였다. 또한, 회계 지식수준이 상이한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안된 순화 용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현실적 과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용어 순화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가 겪는 ‘학습 비용’과 실무자가 우려하는 ‘전환 비용’ 사이의 상충 관계로 인해 세대 및 경력 집단 간에 대립이 존재함을 규명하였다. 이는 회계 용어 순화가 단순히 언어학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제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비용 구조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임을 시사한다.

A Study on the Refinement of Japanese-Style Sino-Korean Terms in Korean Accounting Terminology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ncome Statement, Cost of Goods Manufactured Statement, and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

Kim, Yu-Young · Hue, Kwang-Bok

This study begins with the recognition that Japanese-style Sino-Korean terms remaining in the Korean accounting field function not merely as historical remnants, but as ‘linguistic fossils’ that create learning barriers and communication gaps in the modern accounting environment. To address this, the study moves beyond existing normative discussions by developing a ‘Purification Necessity Score’ model that quantitatively prioritizes terms for refinement based o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Kanji difficulty, term length, and frequency of public use. Furthermore,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groups with varying levels of accounting knowledge to empirically analyze the social acceptability and practical challenges of the proposed refined terms.

The results revealed a conflict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and career-level groups, stemming from a trade-off between the ‘learning cost’ faced by learners and the ‘switching cost’ feared by practitioners. This suggests that the refinement of accounting terminology is not simply a linguistic task of finding better alternatives, but a complex issue that requires a social consensus based on consideration of the cost structures of various stakeholders.